미혼모 보호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 요구도와 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Need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Institutionalized Unmarried Teenage Mothers

- Focused on Interviewing with Social Workers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원 송현애 · 전길양 · 천혜정 · 배선희 · 송말희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Song, Hyunae · Jun, Gilyang · Cheon, Hyejung · Bae, Sunhee · Song, Malhee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ducational needs of institutionalized unmarried teenage mothers and difficulties of runn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of the study, structured interviews with 4 social workers are conducted. At first, social workers who were working with teenage mothers tol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teenage mothers. Secondly, they presented their ideas about teenage mothers' educational needs, especially for preventing their repeated pregnancy. Thirdly, they pleaded their own sorry situation for running facilities such as depending on volunteers too much, financial problems, and limitations for running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주제어(Key Words): 미혼모보호시설(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unmarried mothers), 미혼모보호시설종사자(social workers for unmarried mothers), 10대 미혼모(unmarried teenage mothers), 교육요구도 및 프로그램(educational needs and programs)

I. 서 론

최근 미혼모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10대 미혼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부녀복지연합회에 의하면 1984년에는 전체 미혼모 중 10대 미혼모의 비율은 24.9%였는데, 1996년에는 49.6%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함영희, 1996), 1998년에는 10대 미혼모가 60%를 넘어서고 있다(애란원, 1998). 한 조사에 의하면(박인선, 1998), 혼전 임신건수는 최소한 연간 60만건 이상으로 이 중 15-19세의 임신이 최소한 연간 3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해당 연령 인구의 16%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10대의 임신은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 등 여러 부분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미혼모 경험이 이후 전 생애의 발달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인공유산을 하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시기를 놓쳐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미혼모의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들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불충분한 교육으로 낮은 비전문적 기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며, 임신 후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가 없으면 자포자기하여 다시 임신을 하게 되거나 쉽게 돈을 버는 유흥업 등의 일을 선택하게 되기가 쉽다(허남순, 1998)고 지적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시기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일단 발생하면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후처방적인 접근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혼모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생태학적 체계 내에 있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임신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미혼모 복지정책은 가정,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책 강구와 치료방법의 모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김귀덕, 2001), 현재 시설보호에 그치는 소극적 방법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혼모 보호시설,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모자보호시설,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모를 위한 보건소중심의 모자보호사업 등이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로 행해지고 있다. 현재 각 시설마다 다양한 서비스 종류가 있으며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입소자를 위한 개별, 집단상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혼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미혼모 복지정책은 간신히 당면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실정에 있는 시설보호위주의 치료적이고 구호적인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미혼모 일시보호시설의 입소자들은 평균 2-3개월 동안 분만과 산후조리를 마치고 퇴소하여 임신이전의 환경으로 되돌아간다. 퇴소한 임신경험 청소년들은 다시 임신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되돌아가고 거듭하여 준비되지 않은 성활동을 하며 피임에 실패하여, 재임신의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영실, 2001). 일반적으로 재임신 청소년이 갖는 문제는 임신 1회 경험한 청소년이 갖게 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재임신 청소년은 임신 1회 청소년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더 빈곤해지며, 중퇴율이 높고, 문제행동 경험율이 높으며,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임신·출산한 10대 미혼모에 대해서는 반복 임신을 막고, 출산 이후 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교육,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된 것은 미혼모 발생이 급증하면서 문제

점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지금까지의 미혼모 연구경향을 분석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미혼모 관련 연구는 주로 개인적, 가정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세 요인을 중심으로 미혼모 발생요인의 탐색과 이를 복지적 측면에 연결시키는 연구에 편중되고 있으며(김용숙, 1980; 김근조, 1984; 양인순, 1988; 이성형, 1990; 이금주, 1994; 노상학, 1996; 이지연, 1998; 조성훈, 1999; 노연조, 2000), 이외에 미혼모 관련 실태조사연구(이명홍, 1981; 한국여성개발원, 1984; 박수천, 1998),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연구(윤형옥, 1993; 한국부인회총본부, 1996),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영주, 1998),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주숙남, 1999)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미혼모 관련 입양기관이나 미혼모 시설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직접 미혼모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미혼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미혼모 복지대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 가족들이나 미혼부,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혼모 시설의 종사자들은 누구보다도 미혼모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미혼모들의 특성과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적응에 필요한 요소들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는 전문인들이다. 즉 그들은 미혼모들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효율적 시설운영체계, 그리고 미혼모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 사회적 지원체계의 적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견해는 미혼모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미혼모를 위한 욕구나 특성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혼모 대상 일변도의 미혼모 연구에서 벗어나 일차적으로 미혼모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복지적 욕구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미혼모보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을 통해 미혼모의 특성과 그들의 요구도를 파악해 보고, 미혼모의 복지적 차원의 증진을 위해 시설종사자들이 피력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미혼모 복지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우리 나라의 경우 모자복지법(1989. 4.)에서는 미혼여성을 모(母)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 이내의 보호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혼모가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8곳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 정신능력의 함양과 직업교육의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 8곳의 현황을 보건복지부 발표자료(2002. 4)와 각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이들 각 시설은 상담과 교육, 의료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등, 미혼모 시설로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개별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담프로그램은 모든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행에 있어서는 가족상담에 역점을 둔다든지, 일대일 결연에 중심을 두고 또 언니/오빠, 또 이모, 또래친구 맺기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방송활동이나 신문 만들기 등의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특성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검정고시대비 교육이나 산모 그룹 상담이나 윤리교육, 종교적 모임을 통한 정서적 지원 등의 개별적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

<표 1> 미혼모 보호시설 현황

시 도	시설명 (인터넷사이트)	수용정원 (수용현원)	종사자 현원	건축규모 (m^2)	운영주체	주요 사업내용(프로그램)
서울	구세군 여자관 (www.sawoman.or.kr)	35(19)	8	811	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전화상담, 개별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새식구적응훈련, 심리검사, 분만·태교 교육, 산모집단상담 등)
서울	애란원 (aeranwon.org)	40(31)	8	9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지재단	상담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진로프로 그램, 멘토링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미혼양육모자자립지원, 기타 프로그램
부산	마리아 모성원	50(27)	6	416	마리아 수녀회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직업교육,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아동양육시 모자보호시설 보호
대구	혜림원 (www.haerimwon.or.kr)	50(45)	8	1,008	대한사회 복지회	미혼모상담, 인성교육, 의료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후원사업
광주	인애 복지원 (iwelfare.wo.to)	30(19)	5	1,135	인애동산	주간프로그램(피부관리, 미술심리치료, 요가 및 상담, 노래지도, 개별상담 등)
경기	에스더의 집 (myhome.netsgo.com/esws21)	50(32)	7	686	동방사회 복지회	주간프로그램(종이접기, 태교, 컴퓨터교실, 독서교실 등), 집단상담, 산모그룹상담, 성경교육, 월간프로그램(입양교육, 예절 교육, 편지쓰기, 봄소풍 등)
강원	마리아의 집 (www.maryhome.or.kr)	40(23)	8	457	천주교 춘천교구	양재 수편교육(애기옷 만들기, 퀼트), 교양교육·윤리교육·성교육
충북	자모원 (jamowon.or.kr)	50(20)	7	1,431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상담프로그램, 주간프로그램, 연간프로그램 (송편만들기, 성인식하기, 봄나물캐기, 새해설계 및 인사나누기)

으며, 편하게 쉬는 것에 역점을 두고 순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요약하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상담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주된 내용이 되고 있으며, 시설의 특징에 따라 차별화되는 개별적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 재적응에 절실히 요구되는 직업보도교육은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미생활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난다(각 미혼모시설의 구체적인 주요 사업내용은 표에 제시된 인터넷사이트를 참조).

III. 연구방법

1. 면접대상

우리 나라의 미혼모 보호시설은 서울(2), 경기, 부

<표 2> 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가명)	연 령	전 공	경 력
김영숙	42	사회사업	16년
박숙희	41	사회복지	2년*
조미경	44	사회복지	15년
전소영	35	회계학	2년**

*의 경우, Y청소년단체에서 15년간 근무경력이 있으며, **의 경우 또한 소속된 종교단체의 주업무가 미혼모사업이어서 본 시설의 직접적 근무경력은 짧으나, 10대들과의 생활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등 2002년 1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8개의 시설이 있다. 그 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위치한 3곳의 미혼모 보호시설과 최근 미혼모 복지를 위한 시설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1곳의 중간의 집(장기 그룹홈) 등에서 4명의 시설 종사자를 유의 표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면접내용 및 진행과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2001년 8월에 수행되었으며, 면접대상자가 속해 있는 미혼모시설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면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우선 본 조사의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면접내용은 응답자의 양해를 얻은 후 녹음되고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절차를 밟았다.

면접은 미혼모를 직접 만나고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설 종사자로서 느끼는 점과 미혼모를 위한 현실적인 도움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즉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최근 경향, 미혼모들의 사회적 관계의 실태, 미혼모들의 자기 인식이나 심리적 상태의 경향, 퇴소 후의 계획과 실천도, 그리고 미혼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내용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미혼모 시설의 종사자로서의 인식과 요구 및 본 시설 기관에서 주력하는 사업 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이와 같은 몇 가지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 종사자들은 개인적인 견해와 느낌, 그리고 소망과 제언 등에 관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경향 및 특징

인터뷰를 한 시설 종사자들의 눈에 비친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0대 미혼모의 급격한 증가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가족이나 미혼부와 연락을 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 그리고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10대 미혼모들은 외적으로는 당당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1) 가족의 무관심: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인터뷰를 한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유기 등으로 그 형태가 비전통적 가정 출신이 많으며,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소홀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즉 미혼모 발생의 원인으로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을 들고 있다.

> "특별난 아이들이 아니라 관심밖에 있는 아이들, 결손 가정이라든가, 사랑도 못받고 소외되고 그래서 정보에 소외되고 도움을 청할 자원이 부족한 아이들이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박숙희, 41)

> "미혼모 아이들을 보면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가족이 눈에 잘 안보여요.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요?"(전소영, 35)

> "내면적인 것을 보면, 가족 내에서 아빠가 학대, 폭력이라던가 등에 더 노출된 가정에서 미혼모가 거듭 임신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지요. 부모들의 지도, 감독, 그런 관리 면에서 허술한 집들에서 자꾸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디가서 애가 뭐하는지 친구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서 헛점이 있는 그런 가족들에서 애들이 임신을 자꾸 하더라구요."(김영숙, 42)

십대에 미혼모가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성행동

이나 태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이나 별거, 또는 혼외 출산의 전력이 있는 가족환경, 편부모가정의 결과로 인한 낮은 소득, 잦은 가족구조의 변경 등의 구조적 결손과 이에 수반되는 기능적 결손과 같은 가정적 요인이 미혼모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배영미, 2001)의 지적과 일관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 내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들은 집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은 부모들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로 이어져 성비행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혼모들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이나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외강내유(外剛內柔): "겉과 속이 다르죠"

최근의 미혼모들의 특징은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겉으로는 자유롭고 당당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뚜렷한 변화로는 연령이 낮아진 거 그래서 10대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가 변화된 거중에 제일 큰 거구요. 요구에 있어서는 당당해 졌어요. 선생님 옷 좀 사주세요.. 반찬이 부실해요 등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에요. 열등감도 있고, 자아 성취감도 약하고" (박숙희, 41)

"십대가 많아졌지요. PC방 가서 채팅하고 그러다가 만나게 되서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옛날에는 미혼모 그러면은 낙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찍는 그런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되지 않아요. 내가 미혼모다. 이런 것들이 뭐 자랑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게 꼭 죄라구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미경, 44)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밤에 죄책감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많이 울어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상처를 갖고 있죠" (전소영, 35)

10대 미혼모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달리 내면적인 상처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대 미혼모들의 가슴속에 있는 상처와 어두움을 다루어주는 전문적인 도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가족 및 미혼부의 접촉 증가: "미혼부나 가족과의 연락이 느는 편이죠"

시설 종사자들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미혼모들이 미혼부나 가족들과 연락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모들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개가 임신을 알리지 않고 헤어진 후에 임신을 알게 된 친구가 있고,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은 한 1/3정도인데 아무 때나 와서 만나요. 처음에는 머쓱해 하지만 한두번 오게 되면 아무거리낌 없이 그냥 들어와서 면회하고, 임신을 같이 슬퍼하고 안쓰러워하고 그래요. 미혼부가 찾아오는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족들과도 연락이나 접촉은 느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박숙희, 41)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니까 연락되는 미혼부들은 오는 편이에요. 이 중 찾아오는 미혼부들은 한달에 한번 정도 꼴로 오고 또 날마다 전화하기도 하구요. 과거에는 전혀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얼굴을 나타내는 편이지요. 미혼부가 찾아왔다 가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합니다" (조미경, 44)

이러한 변화로 볼 때, 미혼부와 미혼모 가족에 대한 교육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못지 않게 미혼부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하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미혼부들(특히 10대 미혼부들)도 막연한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선택한 자기 방어적인 행동일 수 있다. 따라서 미혼부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인식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들은 퇴소 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으며(손흥숙, 1995), 이는 본 조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10대 미혼모의 부모들

은 자녀가 임신하게 됨에 따라 실망과 충격을 느끼며 이와 더불어 자신의 손자에 대한 양육책임, 의료비용, 음식, 주택에 관한 비용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Ross, 1991)는 점을 감안해볼 때, 미혼모와 그 가족이 긍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앞으로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4) 양육 의사 증가: "아이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늘고 있어요"

시설 종사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10대 미혼모일지라도 아이에 대한 모성을 강하게 표현하며, 현실적인 여건이 되면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입양 보내는 사람이 80%이고 키우는 사람이 20%예요. 10대 같은 경우는 입양이 더 높죠. 거의 90%가 입양시키고 10%도 채 안되었는데, 요새 좀 느니까 10%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김영숙, 42)

"아이를 키우겠다는 아이가 10%정도. 10대도 입양 안하고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조미경, 44)

10대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 의사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1984년(한국여성개발원)과 1996년(부녀복지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혼자 기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와 4.5%였다. 그러나, 2000년(윤미현)에는 9.2%로 증가하였으며, 모자 보호 시설이 있거나 아기를 잠시 맡길 임시 위탁 시설이 있으면 여건이 마련된 후 데려다 키우고 싶다는 비율이 각각 42.3%, 36.2%나 되었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학업중단 등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의 입양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아이양육도 고려된 즉, 각 미혼모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시설종사자들은 다른 연령대의 미혼모보다 10대 미혼모들은 아직 어리고 변화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희망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미혼모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과 같은 상담 프로그램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설종사자들과의 면접내용을 정리해 볼 때, 미혼모들의 적응을 돕고 재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교육, 자아 존중감 향상, 가족 및 대인관계 향상, 퇴소 후의 준비 등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 가치관의 함양과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성교육: "수박 겉핥기 식의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돼요"

인터뷰를 한 시설 종사자들은 미혼모의 발생 예방이나 재임신 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재임신율이 10대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자를 교육하기 전에 남자들 먼저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성교육이 일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아낄 수 있는 사고를 갖도록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빨리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전소영, 35세)

"학교 다닐 때 성교육은 수박 겉핥기 식이었지요. 정말 필요한 거 이제 피임약은 어느 정도 먹고 성관계를 해야 하고, 이틀 정도 이상을 안 먹게 되면 임신 가능성에 노출되고, 정말 꼭 필요한 콘돔은 어떻게 사용하고, 물론 아이들에게 어떤 의지의 절제된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쾌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존중하는 성교육이 필요한데 비디오 틀어주면 그 시간에 놀거나 조는

거죠" (박숙희, 41세)

"이미 경험을 하고 애를 출산한 경험을 한 애들의 성교육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이해관계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느냐가 확실해야지 안하지, 성관계 하는 애들한테 너 하지 마라 그런 걸로 접근한다고 하면 제대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다시 나가서 성관계할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게 가슴에 와 닿으면 안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피임은 해요" (김영숙, 42세)

10대 미혼모의 발생 예방과 재임신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여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남자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대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피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성적 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성교육이 성적 활동의 시기나 양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성적 활동을 연기하고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awson, 1986; Eisen & Zellamn, 1987). 이와 동시에, 성은 생물학적인 차원뿐 아니라 심리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성교육의 내용은 성과 관련된 지식이나 피임법 같은 기술적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감정, 신념, 가치, 태도, 행동, 그리고 관계의 차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해요"

시설 종사자들은 미혼모들이 자기 방어 면에서 약하며 자기 가치감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녀 관계에서도 자기를 방어한다거나 이런 거가 없어요. 그런 거를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열등감도 있고, 자아성취감도 약하고, 자기 존중감도 약해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 꿈 등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긍심 교육이 필요해요" (박숙희, 41)

"우선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 자존감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심성 개발이 필요하고, 상실감, 죄책감, 우울감을 다뤄줘야 되요" (조미경, 44)

시설종사자들에 의하면 10대 미혼모들은 자존감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이 미혼모가 되는 데 영향을 주든, 미혼모가 됨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든간에 결국에는 청소년시기 미혼모의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자아존중감이 이후 삶의 부정적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중요한 내적 자원임을 감안할 때,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미혼모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인특성(배영미, 2001)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또 가출을 안해요"

시설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 향상 도모가 미혼모 대상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된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혼모들이 출산 후에 가장 큰 필요한 도움이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 또는 가족의 용서라는 연구 결과(허남순, 1994)와도 일치하고 있다.

"부모가 알고 있는 것, 적어도 엄마라도 알고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구요. 그래서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담하면서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 있게 설득을 하지요. 그래도 안되는 경우를 볼 때, 가족과 가정문제를 깊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되돌아가도 또 가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애들한테서 일반적인 대인관계 맺는 법이라던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거를 극복하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조미경, 44)

"가족체계를 안정시키는 서비스를 행한 후, 미혼모가 가족으로 들어갔을 때 임신으로 안가거든요. 가족의 요인들을 찾아서 부모 교육을 시킨다던가 자식을 관리하는 법, 가족 관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게 되면, 안정적이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지식한 태도를 취하는 그 가족을 들여다보면 이미 미혼모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강화시켜주어야 되죠" (김영숙, 42)

일단 가족들이 임신사실을 안 이후에는 무관심이나 냉대보다는 동정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배영미,2001)을 감안할 때, 미혼모들이 출산 후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매우 큰 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시설종사자들도 지적했듯이 미혼모들이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과 적응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원만한 대인 관계의 중요성과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4) 퇴소 후의 계획: "희망을 찾는데 도움을 줘야 해요"

미혼모들은 학교 생활이나 자신들이 하던 일을 중단한 채 시설에 입소한 상태이므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막연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십대에서 뭐 임신해 가지고 미래가 다 중단된 상실된 상태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어디가 문제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리고 앉아서 희망 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애네들은 그 희망을 찾아주는 것에 발동을 탁 걸어주는 게 좋거든요" (김영숙, 42)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구요. 그 친구들이 나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을 경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면 당장 돈을 벌어야 자기가 먹고 살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 주어야죠" (박숙희, 41)

시설에 있는 동안 미혼모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모색해 보거나, 또는 자신의 희망과 여건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 보고 이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미혼모시설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만족할만한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모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3. 재임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

미혼모들이 그들의 상황을 수용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미혼모들의 재임신 발생을 예방하는 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적응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 해소, 다양한 특징의 중간의 집 활성화, 자조 모임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1)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마음의 짐을 더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미혼모들이 임신과 출산에서 오는 불안과 긴장, 상처 등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 즉 미혼모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전문적 상담이 시설 입소부터 퇴소 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주어질 때, 미혼모들이 삶의 안정감을 찾고 재임신의 가능

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입양을 하고 오는 애들한테는 정신학적으로 친모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붙어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행동을 하죠. 애기 상품 코너앞에 무심코 멈춰선다던지, 지나가는 애 보면서 자기가 보낸 애를 자꾸 떠올리고 나이를 생각한다던지.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본인도 자꾸 그런 걸 겪으면은 입양 보낸 애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고. 사회에서 미혼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립된 상태에서 계속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김영숙, 42세)

"작년에 애 낳고 봄에 간 친구가 한번은 찾아왔는데 엉엉 울고 갔어요. 미혼부랑도 헤어졌대요.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이제 짐이 버거운 거죠.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상담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숙희, 41)

"부모와 묵은 감정을 풀고 자기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매우 필요해요.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미혼모와 그들 부모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전소영, 35세)

미혼모들은 아이입양 후 정신적인 고통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다. 또한 일부 미혼모들은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관계로 인해 아픈 상처가 더 깊어지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것들은 미혼모들이 앞으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미혼모 부모나 미혼모 및 미혼부 등을 위한 전문적 상담의 확대는 미혼모의 재적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어 격려하는 것이 이미 아픈 상처를 경험한 미혼모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 해소: "실패한 아이라는 낙인이 무서운 거예요"

미혼모들의 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 모두 실패한 개인으로만 치부 하여 훈계나 일시적인 원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십대인 경우는 일시적인 관계로 임신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도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이 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되는 거죠. 애들이 어리니까, 같은 10대니까. 이제 그 애 내 애 맞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면 걔 내 애 맞아요. 근데 너무 겁나서 그랬어요. 외부에서 보면 무책임하죠. 하지만 그 미혼부의 대다수의 실상은 미혼모와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김영숙, 42세)

"미혼모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얘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패한 아이로만 볼 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하거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교에 복학해서도 대다수가 적응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혼모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말고 우리사회 모두가 안고 가야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박숙희, 41세)

미혼모가 겪게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문제로, 이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 된 여러 가지 사연은 배제한 채 이들을 일탈자로만 여기는 풍조에 기인한 것(배미영, 2000)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임신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할 뿐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는,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오명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혼부의 낙인 역시 그들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등 수동적 태도를 불러일으켜 결국 미혼부 자신 및 미혼모들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부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비난과 판단보다는 재발 방지, 사후 책임감과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3) 중간의 집 활성화: "퇴소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해요"

인터뷰를 한 시설 종사자들은 미혼모들이 재임신

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의 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자립의 어려움이 있는 미혼모들이 편안히 거주하면서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나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2의 프로그램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다른 체제의 그룹홈이 필요하고, 퇴소 후 이용할 수 있게 상담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구요. 여기서는 몸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 가면 몸도 다 풀었으니, 자기 진로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 필요하죠" (김영숙, 42세)

"아이를 키우겠다는 미혼모나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자립의 어려움이 있는 미혼모들이 편안히 거주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시설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박숙희, 41세)

"여기 와서 2, 3개월이 평균이고 오래 있는 애들은 1년 넘게 있다가 우리가 따로 하는 그룹홈으로 넘어가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자원이나 이런 곳에 가기 전에 또는 시설에 대한 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자활적인 특성이 드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미경, 44세)

"그저 아이들이 아주 편안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 교육을 강조하는 곳, 심성개발에 더 주력하는 곳, 그리고 집에는 되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성격적으로 쉽게 시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어려워 시설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에게 교정의 성격이 보다 강한 장소와 같은 다양한 중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전소영, 35세)

상당수의 미혼모들은 출산 후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러나 귀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미혼모들에 대한 사후적 도움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들을 재임신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출산 후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출산 후 그들이 인생 설계를 실천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의 집(그룹홈)'과 같은 서비스 체계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퇴소 후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갈 수 있는 시설로 모자원이 있기는 하나 모자원 입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미혼모라는 편견과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과 지역 사회, 정부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자조 집단의 필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과의 유대가 중요해요"

미혼모들이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미혼모들이 당장 왔는데 상담원들은 현재 입소해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개별 상담으로 하루종일 쫙 악 차 있고 집단이 오전, 오후로 돌고...그래서 찾아온 미혼모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런 게 해결이 안되면 윤락으로 가는 거죠.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조집단이 필요해요. 먼저 선배로서 모델링도 되고 지지도 주어지고 하면 도움이 되죠" (김영숙, 42세)

"누가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그럴텐데. 우리는 못해주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대신 해줘야 하고 어떤 선배들이던가 동료들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잖아요" (조미경, 44세)

퇴소 후 미혼모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 체계는 이들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 가정에서 부모가 지지 체계가 되지 못하고, 미혼모 시설에서도 퇴소 후 상담까지 담당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같은 경험을 한 미혼모들 스스로가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몇 미혼모 자조 집단

이 운영되고 있다. 미혼모로서 겪는 어려움, 즉 아동을 양육하면서 혹은 입양을 결정하고 겪는 심리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학업복귀에 대한 두려움, 주위의 시선의식, 미혼부에 대한 배신감 등 서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경험담을 들려주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4.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미혼모 시설에서 주력하는 사업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임신 예방과 자존감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뷰를 한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미혼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견이나 상처를 받지 않으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1) 인력부족/재정적 어려움: "인력은 없고, 전문가를 찾으면 돈이 들죠"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프로그램 진행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는 상담 능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재정상의 문제로 전문가의 지원 요청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인력이예요. 인건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여성 시설은 특히 미혼모 시설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가는 데라고 낙인찍혀서 후원금이 더 없어요. 프로그램은 해야 되는데 인력은 없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못 돌려요. 그게 제일 큰 문제구요. 사실은 다른 상담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고급의 인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설 종사자 상담원들의 역량이 높지 않아요.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숙, 42세)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전문가들도 찾기가 힘들뿐더러 또 그런 전문가를 찾으면 그만큼의 돈을 요구해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보조가 있으면 전문가들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봐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미경, 44세)

미혼모들이 상실감, 우울함 등을 극복하고 자립하는데는 유능한 실무자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열악함은 인적 자원의 확보나 질적인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미혼모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인적 자원과 충분한 재정의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체계적 프로그램 실시의 한계: "기껏해야 3개월인데 그동안 뭘해요"

현재 미혼모들이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은 1-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은 시설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너무 짧다. 즉 시설에 있는 동안 미혼모들이 체계적인 배움과 성찰을 통하여 사회재적응에 활용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기간상의 문제 때문에 미혼모 시설은 단순히 출산 이전에 시간을 보내는 장소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심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놔줘요. 안된다,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최소한의 규칙으로. 이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움 속에서 하는 어떤 배움이라구 그럴까.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2개월이라는 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게 되면은 뭐가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믿는 거죠"(조미경, 44세)

"시설 측에서는 아이들에게 아주 최대의 서비스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미혼모 아이들 특히 10대 미혼모 아이들이 오래 머물지를 않으니까 많이 머물러야 1개월-3개월인데, 애기를 낳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짧아서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입양 시에 부모 동의를 원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죠" (박숙희, 41세)

"미혼모들의 가정 방문이나 부모와의 지속적인 대

화를 추진하여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심성 개발과 인간 관계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꾸준히 교육하고 있어요.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동기를 많이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전소영, 35세)

미혼모들이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 미혼모 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미혼모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나 주변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 미혼모들의 심성 개발과 인간 관계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시 기간이나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이지만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 실시가 요구된다.

시설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볼 때, 10대 미혼모의 가족은 부모의 이혼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양쪽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0대들은 가출을 하게 되고, 건전하지 못한 생활에 쉽게 접하게 되면서 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자녀의 이성 교제에 대한 긍정적 사고, 자녀와의 개방된 의사 소통, 가족 응집성의 향상 등을 다루는 부모 역할 훈련이 매우 필요하며, 또한 자녀의 역할 모델로서 행복한 부부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부 교육이 예방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다수 미혼모의 경우, 퇴소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실제로 70-80%가 집으로 귀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을 맞는 부모들의 역할이 어떠하냐가 미혼모의 재임신을 예방하거나 원만한 사회복귀를 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허남순, 1998). 앞의 미혼모 보호시설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시설에서 실시하는 미혼모 적응 프로그램에는 미혼모 가족이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둘째, 미혼모의 적응을 지속적으로 돕는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출산한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시설종사자들은 많은 미혼모들의 경우, 아이를 입양시킨 후 친모증후군 등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결혼 후 가족 관계나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혼모 보호시설에서는 전화상담과 기타 상담이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혼모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혼모보호 시설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상담원이 상주함으로서, 미혼모들이 사회의 부정적 낙인을 통해 겪게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토로하고 자신감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질 필요가 있다.

셋째, 미혼부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 실시가 요구된다.

시설 종사자들에 의하면 최근 미혼모들을 만나러 시설을 찾는 미혼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접촉은 미혼모들의 정서적 안정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혼모시

설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혼모 보호 시설에서는 미혼모 뿐 아니라 미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상담 역시 필요하다. 미혼부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내용은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미혼모와 미혼부를 함께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도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중간시설의 운영이 요구된다.

시설 종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10대 미혼모들이 양육을 원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과 가족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육의사가 있는 미혼모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아기를 돌보며 자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일시적 모자보호시설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를 입양한 미혼모일지라도 퇴소 후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미혼모들을 위해서 얼마동안은 편안히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중간시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미혼모가 아이의 양육을 원한다면,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수단적 보조와 같은 적절한 도움이 제공될 수 있는 시설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 교육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10대 미혼모들의 학력은 1/3정도가 중학교 중퇴 및 졸업으로(윤미현, 2000), 이들의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문제가 이들의 적응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의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으로 인해 학교 공부가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고 퇴소 후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신사실에 대해서 학교는 전혀 모르거나 퇴학이나 휴학 등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혼모들 중 상당수는 퇴소 후 복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령 복학을 한다하더라도 미혼모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재적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혼모 시설보호시설에서는 학교교육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공부로 학력 취득을 원하는 미혼모들에게는 사이버 학교나 방송 통신 고등학교 또는 기타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 학교 등 정규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통해 시설에 있는 동안 원하는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유기적 연계망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혼모 보호 시설에서 지내는 몇 개월이 그들에게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단기 시설입소의 경험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보면 빨라야 임신 7개월 정도이며, 대체로 임신 8, 9개월에 입소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 후 바로 퇴소하는 경향이 있어 시설에 머무는 기간이 단기간이 라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교육시간이 짧고, 특히 미혼모들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지금 현재의 시설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취미 교육 위주로 '시간 보내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 점은 미혼모들로 하여금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미혼모들이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죄책감에 시달 리고 있다는 점, 당장 퇴소하면 다시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 특히 10대의 미혼모들은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 출산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 등, 본 연구에서 밝혀진 현실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그들에게 시설생활에의 적응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퇴소 후 사회

를 향해 자신감 있게 첫 발을 내딛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보다 현실적인 진로 및 자립 교육이 요구된다.

퇴소 후 학교에 복귀하고 싶어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현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미혼모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일정한 목표가 없이 퇴소하여, 퇴소 후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시 재임신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들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고 자립기반을 모색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째, 무엇보다도 상담원의 자질 향상이나 전문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혼모들은 출산 후 입양이냐 양육이냐, 퇴소 후 취업이냐 진학이냐, 복학이냐 검정고시냐 등 미혼모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추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작 미혼모 보호 시설의 상담원의 규정을 보면 그 인원이나 자격 기준에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10대 임신'이라는 매우 큰 인생의 사건에 맞닥뜨린 미혼모들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원의 자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상담원의 자격 기준의 강화나 정기적인 보수교육, 또한 대체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홉째, 자조 집단(support group)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퇴소 후 미혼모들이 사회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할 때, 시설은 이들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의논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시설인력으로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미혼모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에도 부족하므로, 퇴소한 후의 미혼모들에게까지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적응을 위해서 자조집단의 형성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설의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조 집단을 이끌어 나가거나 혹은 미혼모들 스스로 집단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열째, 10대 미혼모의 효율적인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 입양절차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입양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종사자들은 일부 미혼모들의 경우에, 가족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원치 않아서, 오히려 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10대 미혼모들의 양육의 기반이나 대안적 접근이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미 발생된 10대 미혼모의 효율적인 사회적 보호를 위해, 입양 절차상 현실적인 보완과 방법의 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미혼모 대상 일변도의 미혼모 연구에서 벗어나 미혼모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눈을 통해 미혼모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들을 위한 복지대책의 보완과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상황이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사례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혼모 당사자나 시설종사자뿐 아니라 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미혼모 연구에 한층 깊이를 더해 주어 보다 효과적인 미혼모 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강영실(2001).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귀덕(2001). 미혼모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근조(1984).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1998). 미혼모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숙(1980). 미혼모를 위한 부녀복지의 방향. 아동복지 봄호. 홀트아동복지회.
노상학(1996). 미혼모와 혼외자를 위한 사회복지대책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현조(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수천(1998). 미혼모 실태 및 예방·보호정책 방향.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박인선(1998).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배미영(2000). 미혼모 발생요인 분석-미혼모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영미(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변명숙(2001).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녀복지연합회(1996). 한국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1차 여성복지세미나 보고서.
손홍숙(1995). 가정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 요인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51-62.
양인순(1988).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미현(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 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형옥(1993). 부산지역 미혼모의 성경험, 임신, 분만 실태 및 향후 생활계획에 대한 조사연구. 인제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금주(1994). 한국 미혼모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홍(1981). 미혼모 실태와 예방. 제1회 여성보호세미나. 홀트아동복지회.
이선욱(2001).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형(1990).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숙희(2001).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연(1998). 미혼모시설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옥희(2001). 청소년 미혼모 쉼터 이용자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훈(1999). 한국의 미혼모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숙남(1999). 미혼모의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진숙(2001). 10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 체험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부인회총본부(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대한 자료집. 서울: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1987). 미혼모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영희(1996). 미혼모의 실태, 한국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여성복지세미나. 서울부녀복지연합회.
허남순(1998). 미혼모복지의 발전방향. 사회복지. http://sun.hallym.ac.kr/~welfare/study.